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연준, 어제 0.25% 인상... 3월에도 인상 시사
- Bloomberg: 노동시장 둔화... 그러나 연준 입장에선 불충분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건 5주간 4연속 줄어...고용시장 여전히 강해
- Bloomberg: 미 고용주들, 1월에 직원 10만여명 줄였다
- WSJ: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관계없이 부채 한도 상향 움직임

#### [미국 금융]

- WSJ: 금융 시장 투자자들, “연준의 금리 강경 발언은 엮포 일뿐”

#### [항공]

- WSJ: 제트 연료 비용 상승...항공료 인상 위협

####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미·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경기 침체에 CEO 임금도 삭감된다...애플, 인텔, 모건스탠리 등
- CNN Business: Subway, 2022년 매출 신기록...”고기 절단기 직접 사용해 판매 더 늘릴 것”

#### [보고서]

- JP 모건 보고서: 워싱턴 DC 정책 관점 - 바이든 조사와 부채 상한 등 글로벌 경제 이슈
- JP 모건 보고서: Japan's Big Exit: Ten Questions about Japan's Regime Chan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바로잡음: 어제 제목 Bloomberg: Fed Expected to Slow Rate Hikes in Signal Work's Not Over 관련해  
연준, “아직 완화적 금리 정책 끝나지 않았다” 시사 >>> 연준, “아직 긴축 금리 정책 끝나지 않아”...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Fed Slows Its Tightening With Quarter-Point Interest Rate Rise 연준, 금리 0.25% 인상 한후 3월에도 인상 시사

- 연준은 어제 수요일 금리를 0.25% 인상했다. 다음달인 3월에도 한차례 더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그리고 올 봄 후반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그리고 언제 중단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파월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신호를 보내기는 아직 신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WSJ 기사

## Bloomberg: US Labor Market Seen Cooling, But Not Nearly Enough for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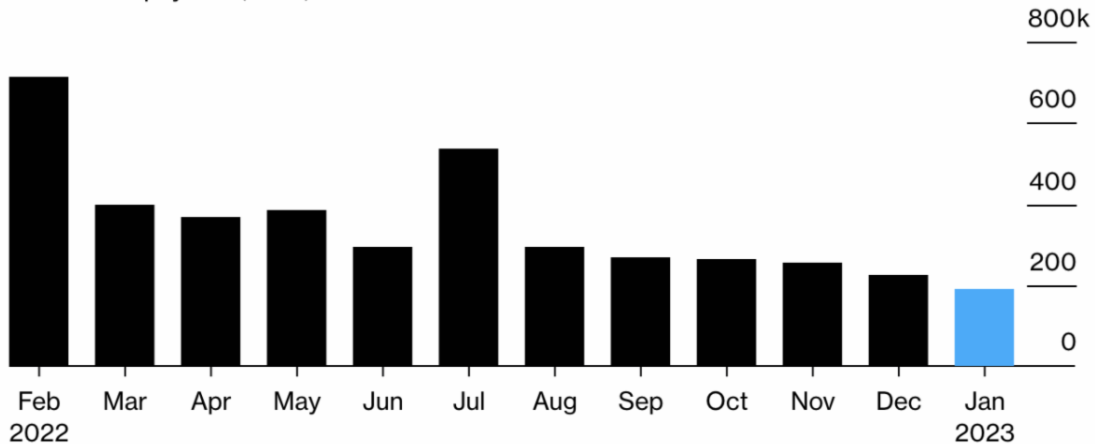
### 노동시장 둔화... 그러나 연준 입장에서선 불충분

- 1월 미 채용이 둔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견조한 임금 상승, 사상 최저의 실업률 때문에 연준은 당분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내일 연방정부가 발표할 1월 일자리 증가 수준은 19만개로 예상된다. 일자리 증가세가 지난 2년여에 걸쳐 가장 낮을 듯하지만 인플레이가 계속 둔화한다면 이같은 유연한 노동 수요는 연착륙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 Job Growth to Moderate But Remain Firm

US payroll growth expected to soften to the weakest pace since 2020

■ Nonfarm payrolls (MoM) ■ Median estimate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survey

##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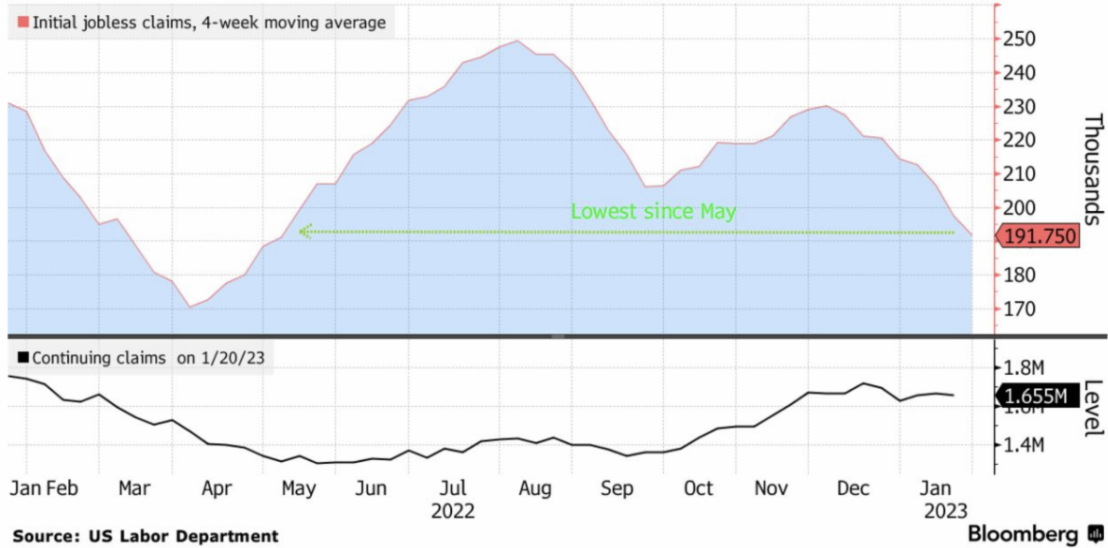
## Bloomberg: US Unemployment Claims Drop for Fourth Time in Five Weeks

### 미 실업수당 청구건 5주간 4연속 줄어...고용시장 여전히 강해

- 연방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천 건 줄어든 18만3천 건으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고용시장의 강력한 회복력이 드러나는 수치이다.
- 물론 미 노동 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테크, 금융 업계의 해고가 이어지면서 냉각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연준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남아 있다.

- 한편 이 데이터는 내일 금요일 연방정부의 고용 보고서에 앞서 발표된 것으로, 1월 고용은 느리지만 여전히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US Jobless Claims Keep Falling**  
**Four-week moving average hits lowest level since May**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Employers Announced More Than 100,000 Job Cuts in January**  
**미 고용주들, 1월에 직원 10만여명 줄였다**

- Challenger, Gray & Christmas, Inc.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 고용주들이 2020년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인 10만 2천 9백 43건의 인원 삭감을 발표했다.
- 이는 작년 12월의 2배가 넘고, 2022년 1월보다 440% 증가한 것이다. 전체 감원의 41%는 테크 부문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소매업체와 금융 기업의 해고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 Andrew Challenger는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 인력을 감축하고 고용을 늦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Bloomberg 기사

**WSJ: Debt-Ceiling Talks Sideline Social Security, Medicare**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관계없이 부채 한도 상향 움직임**

- 당초 공화당은 민주당이 강조하는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프로그램과 메디케어 지출 감소를 주장했으나 최근 한발 물러나고 있다.

- Kevin McCarthy 하원 의장(공화당,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원하는 부채 한도 인상 법안에 투표하는 대가로 이들 두개 프로그램의 연방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수일 동안에는 이들 프로그램의 삭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별도로 국가 부채 31조4천달러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조건없이 연방 부채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수요일 주장했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WSJ: Stock, Bond and Crypto Investors Call Fed's Bluff on Interest Rates 금융 시장 투자자들, “연준의 금리 강경 발언은 오폭 일뿐”

- 1월에 주식이 호조를 보인데다 어제 수요일 연준의 0.25% 금리 인상에도 S&P가 1% 상승했다. 연준이 금리를 자신들의 공언대로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식, 채권,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 이들은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무시하고 있다. 근거는 이런데 1) 지난해 많은 금리 인상 조치들로 경제가 크게 둔화하였으며 2) 실업률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 또한 투자자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가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시장의 예측 범위는 전문 기관마다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BNP Paribas는 S&P 500이 연말까지 3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반면, Deutsche Bank는 지수가 약 450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Goldman Sachs는 시장이 현재와 비슷한 4000에서 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ational Financial Conditions Index**

Source: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WSJ 기사

**[항공]****WSJ: Rising Jet-Fuel Costs Threaten to Send Airfares Higher**  
**제트 연료 비용 상승...항공료 인상 위협**

- 겨울 폭풍으로 정유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이 감소했고, 수백만 중국 여행객들이 구정 연휴를 맞아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소 완화세를 보이던 제트 연료의 가격이 12월 이후 다시 오르고 있다.
- S&P Global의 세계 제트 연료 가격 지수는 12월 20% 올랐고, 특히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77% 상승했다. 다만 제트 연료의 가격은 원료인 원유 가격이 지난 6월 이후 37% 떨어지며 작년의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이미 팬데믹 기간의 침체에서 회복된 반면, 제트 연료의 소비는 이제 막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 수요가 늘어나며 항공사들이 지난해부터 이미 높아져 있는 표 값을 더 올리도록 압박할 수 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The Economist: A new threat to relations between America and China**  
**미·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

- 최근 미·중 갈등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만에 대한 전쟁 공포는 여전하지만, 지난 11월 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대화를 재개를 하기로 한 후로 잠잠해지는 추세이다.
- 하지만 공화당의 주도로 새롭게 구성된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와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USCC)의 활동 방향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미·중 갈등에 다시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CECC는 미국과 중국 관계 사이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중국의 펜타닐 생산, 틱톡 금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모두 다루게 된다.
- 따라서 CECC가 어떤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어떤 문제부터 다룰지에 따라 중국의 반응이나 적개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위원회의 방향이 중국에 대해 너무 대립적이라면, 모든 동맹국들에 지지를 받기도 어려워진다. 특히 유럽의 동맹국들 중 다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는 동의하면서도 비즈니스 거래 측면에서 중국과 다시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 한편 위원회의 활동이 너무 바이든 정책에 공격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 반아시아 혐오 범죄 증가를 부채질한다는 우려와 함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신뢰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자연히 공화당원들에게도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The Economist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The CEOs Taking Pay Cuts: Here's the List

#### 경기 침체에 CEO 임금도 삭감된다...애플, 인텔, 모건스탠리 등

- 2021년 미국 최대 규모 기업의 CEO들은 높은 수익과 강력한 시장에 힘입어 평균 1천4백70만 달러의 급여를 받았다.
- 하지만 잠재적인 경기 침체를 앞두고 경기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고용 동결, 지출 삭감, 감원 등을 단행해왔다. 이에 최고 경영자들의 임금도 삭감하고 있다.
- 최근 임금 삭감을 발표한 기업 CEO에는 애플의 Tim Cook, 인텔의 Pat Gelsinger, 모건 스탠리의 James Gorman, 골드만삭스의 David Solomon 이 이름을 올렸다.

WSJ 기사

## CNN Business: Subway hopes new meat slicers will boost sales after record 2022

### Subway, 2022년 매출 신기록...”고기 절단기 직접 사용해 판매 더 늘릴 것”

- Subway가 북미 지역 매장의 2022년 매출을 전년 대비 7.8% 늘어나고, 750개 신규 해외 매장이 문을 열면서 전 세계 매장 매출이 9.2% 성장하는 등 2022년 예상치를 7억달러 이상 초과한 매출 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 이는 ‘Subway Series’를 통해 손님 맞춤형 메뉴의 성격을 줄이고 직원들이 더 만들기 쉽도록 하는 전반적인 메뉴 개편과 대대적인 매장 리모델링, 국제 시장으로의 끊임없는 확장에 따른 결과이다.
- 한편 Subway는 지금까지 이미 슬라이스된 고기를 납품 받아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매장에 고기 슬라이서를 두고 손님 앞에서 고기를 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략이 소비자 인식과 맛을 개선하며 2023년 판매를 더 늘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CNN Business 기사

### [보고서]

## JP 모건 보고서: Washington Policy Perspectives: Biden investigations and debt ceiling to dominate 118th Congressional agenda

### 워싱턴 DC 정책 관점: 바이든 조사와 부채 상한 등 글로벌 경제 이슈

- 바이든에 대한 조사와 연방 정부 부채 상한선 상향 여부 이슈가 118기 의회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다.
- 물론 백악관은 국가 안보를 중요시하면서 중국의 기술에 대한 야심을 제한하겠지만, 양국간의 디커플링 보다는 리스트를 줄이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인플레이 감축법을 기술 혁신으로 간주하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의 산업 정책이 보호주의가 커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다.
- 글로벌 성장은 악화될 것이고, 인플레이도 계속될 것이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가능성은 없고 올 봄초에 긴장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Blended finance는 시장 접근을 복원시킬 수 있는 정답이 아니며, 특히 기후에 대한 금융은 여전히 초기단계다.
- EU/G7+ 유가 상한제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했다. 첫째로 글로벌 석유 교역의 혼란을 막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수익을 주지 못하게 했다. 둘째로, SPR의 하락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역할을 했다.
- Crypto 및 ESG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 환경을 기대하지만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P 모건 보고서 원문

### JP 모건 보고서: Japan's Big Exit: Ten Questions about Japan's Regime Change

일본의 금융,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니 참고 바랍니다.

JP 모건 보고서 원문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美 실업수당 청구건수 18만건...9개월만에 최저치

### 금리인상·대량해고 소식에도 5주 연속 감소세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지표가 또 나왔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월 22~2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주보다 3천 건 줄어들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물론, 최근 3주 연속 20만 건 미만에 머물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